

가 정 통 신 문 (결핵검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생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결핵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보건법에 제시되어 있는 검사로서, 지역 전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으로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결핵은 3군 법정 감염병으로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결핵환자 발생 시 확산·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결핵환자의 신속한 발견 및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결핵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해 흉부 X-ray 검사를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검사일에 결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검사 후 추후관리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검진 안내

1. 일 시 : 2023. 4. 26 (수)
2. 대 상 : 2,3학년 학생 ,교직원(출생년도)
3. 검진방법 : 이동검진차량에서 흉부 엑스선 촬영(마스크 착용 필수)
4. 검진항목 : 폐결핵 및 흉부질환, 척추측만증, 심장질환 등
5. 검진기관 : 대한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
6. 유의사항
 - **검사 당일 큐빅 등의 부착물이 없는 면티를 교복 상의 안에 입고 등교합니다.** (교복단추로 인한 사진 판독상의 오류 방지 목적)
목걸이, 동전, 열쇠 등 금속성 부착물은 필히 제거합니다.
 - **교복 셔츠 안에 장식이 달린 티셔츠를 입지 않습니다.**
 - X-선 촬영 시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검사에 임합니다.
7. 추후관리
 - 정상 학생 :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학생에게는 결과 통지서를 따로 배부하지 않습니다.
 - 이상 발견 학생 :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결과통지서를 배부 받은 가정**에서는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반드시 재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결핵이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폐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2.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모두 결핵환자가 되나요?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 환자인 것은 아닙니다. 연구결과 결핵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 평균 30 % 만이 결핵균에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 중 10 % 만이 감염 후 결핵환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결핵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되나요?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를 통해 배출되는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에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됩니다.

4.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다 해도 감염자 중 90%는 단순히 잠복결핵감염 상태로 유지,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있으나 면역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는 상태로 증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으며, 전염력이 전혀 없으므로 안전하며 학교생활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전혀 제한 없고, 단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만 양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잠복결핵 중 10%만 면역력이 감소하는 특정시기에 결핵이 발생, 1가지(또는 2가지) 약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결핵으로 발병할 확률을 약 90-95%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결핵의 진단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흉부 X-선 검사로서 결핵을 진단하는 첫 번째 검사로 이 검사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2차 검사인 객담 검사를 통해 결핵균이 검출되면 결핵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6. 결핵환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하나요?

결핵은 치료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지만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타인에 대한 전염력은 빠르게 소실됩니다. 따라서 투약 후 약 2주 후엔 전염력이 소실되므로 등교 중지 또는 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7. 결핵은 어떤 증상이 발생 하나요?

기침 및 가래, 체중감소, 피로감, 미열,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 됩니다.

8. 결핵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결핵이 확진되면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되고, 치료 시작 후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소실됩니다.

9. 결핵을 예방하려면?

결핵균은 직사광선을 쬌이면 수 분 내에 죽게 되므로 잦은 환기, 결핵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충분한 수면과 휴식, 밀폐된 공간 피하기, 금주, 금연, 규칙적인 생활패턴 유지, 햇볕을 자주 쬐며, 기침예절 실천, 자주 손씻기, 고단백식이 권장,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면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결핵검진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검진시작 전 조치



- 검진요원 체온 측정
- 37.5℃ 이상 증상시 검진 배제

체온측정

- 검진시 마스크 착용
- (수검자) 손소독 후 검진시작



검진시작 전 손 소독 실시

검진 전후 및 수시 소독



검진차량 및 검진 장비 소독

대한결핵협회는 신종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